

May 30 교회는 종교 공동체가 아니다

• 골로새서 1:17-23

디트리히 본 회퍼는 “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 타자를 본다”고 말합니다.

교회는 내 생각과 판단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. 오직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. 교회는 이의 단체도 동호회도 정당도 아닙니다.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가족을 이룬 한 공동체입니다.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‘같은 종’을 찾아 공동체를 이루려 한다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종교 공동체일 뿐입니다.

우리가 진정으로 염려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?

교회가 사라질 것에 대한

염려가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, 곧 진정한 교회를 선언하며 살지 못하는 것을 염려해야 합니다. 사람들이 떠난 것은 ‘교회’가 아니라 ‘종교 공동체’입니다. 교회가 그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. 교회의 출발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옷 입고, 끊임없이 ‘하나님의 뜻’을 물어야 합니다.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.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며 순종함으로 믿어야 합니다(디트리히 본 회퍼).

G. K. 체스터튼은 “기독교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직 완벽하게 시도되지 않았을 뿐”이라고 말합니다.

진정한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떠날 것이 아니라

더 깊은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. “부디 이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를 포기하지 말길 바란다. 교회라는 저수지가 막혔다고 한탄하며 비판하고 떠나려 할지 모른다. 그러나 저수지가 마를 때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다.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”(펠립 얀시). 기독교 신앙은 철학이나 정치적 이념, 도덕이나 라이프 스타일 이상의 의미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, 그분은 기독교의 출발점이요 전부이십니다.

예수 그리스도께서

출발점이며 전부이십니까?

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?

② 나는 무엇을 통해 타자와 세상을 바라봅니까?